



시즌 MVP 누굴까?

5명 막판 경쟁 속 35세 이운재 유력

수원 삼성이 리그 컵대회에 이어 K-리그까지 우승컵을 들어 올려 2관왕타이를 차지...

데안·박동혁·이근호·정성훈 포함

신인왕 후보 이승렬·유호준 등 5명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개 구단이 제출한 MVP와 신인왕, 베스트11 후보를 4~5배수로 압축했고...

MVP 후보는 이운재(수원·사진), 데안(서울), 박동혁(울산), 이근호(대구), 정성훈(부산) 등 5명으로 좁혀졌다...

물론 안정환은 당시 관중몰이를 하며 부산의 준우승에 앞장섰지만 득점왕이었던 수원의 사샤가 챔피언결전전에서 손으로 공을 넣은 '신의 손'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탓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서른다섯 살의 이운재가 MVP가 되면 골키퍼로서는 K-리그 사상 처음이다. 게다가 2003년 성남의 김도훈(당시 33세)을 제치고 역대 최고령 수상자가 된다.

이운재는 베스트11 골키퍼 부분의 수상 가능성도 커 결경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운재는 올 시즌 39경기에 출전에 29실점만 하며 수원의 2관왕에 푹푹 한몫을 했다. 경기당 평균 0.74골만 내주는 철벽 방어였다.

그는 지난해 아시안컵 기간 유주파문으로 1년간 대표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선수생활에 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속죄를 하듯 K-리그 그라운드에서 성실한 플레이로 다시 모범이 됐다. 이운재는 "구단과 동료에게 보답하려면 경기장에서 온 힘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특급' 데안도 MVP 후보로 손색이 없었지만 챔피언결전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팀도 우승을 놓쳐 이운재에는 한걸음 뒤쳐진 상황이다.

신인선수상 후보는 이승렬(서울)과 유호준(울산), 신형민(포항), 서상민(경남), 박희도(부산) 등 5명으로 정해졌다. 최고 신인 경쟁은 결출한 새 얼굴이 없어 '도토리 키재기'다.

울산의 포스트시즌 진출과 내년 아시안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에 힘을 보탠 유호준(31경기 2골3도움), 신인 사상 최초의 개막전 두 골 주인공



공인 서상민(32경기 5골), 부산의 돌풍을 이끈 박희도(26경기 4골4도움), 포항의 중원을 책임진 신형민(24경기 3골1도움) 등 모두 잇비슷한 활약을 했다.

그나마 팀의 '준우승 프리미엄'을 얻은 이승렬이 다소 유리한 위치다. 이승렬은 올 시즌 31경기에 뛰여 5골 1도움을 올렸다.

특히 7월2일 컵대회 경기에서 수원의 18경기 연속 무패(15승3무) 행진을 저지하는 등 전체 5골 가운데 3골을 결승골로 장식하며 새로운 해설사로 이름을 알렸다.



프랑스 리그 AS모나코의 박주영(왼쪽)이 8일(한국시간) 프랑스 모나코 루이 2세 경기장에서 열린 FC 소쇼와의 2008-2009 정규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공을 다루고 있다. 양팀은 1-1로 비겼다.

박주영 동점골 '디딤돌'

13경기 연속 선발 출전 AS모나코 소쇼전 비켜

박주영(23·AS모나코)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1부)에서 1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 동점골에 이바지했으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김두현(26·웨스트브로미치 앨비언·이하 웨스트브로)은 두 경기 연속 벤치를 지켰다.

박주영은 8일(한국시간) 오전 프랑스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FC 소쇼와 2008~2009 정규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최전방 투톱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었다. 프랑스 무대 데뷔전이었던 지난 9월14일 FC 로리앙과 5라운드부터

13경기 연속 선발 출전(11경기 풀타임), 박주영은 지난달 3일 트라브르 AC전에서 시즌 2호 골을 터뜨린 이후 한 달 넘게 계속된 득점포 침묵을 깨지 못했지만 동점골 사냥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주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혔다. 모나코는 이날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점 1점 획득에 그쳤으나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위안을 삼았다. 실 새 없이 움직이던 박주영이 동점골에 결정적인 디딤돌을 놨다. 모나코는 카멜 메리앙이 전반 20분 왼쪽을 돌파하고 나서 왼쪽발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를 올렸고 아크 부근에 있던 박주영이 수비수 3명 사이에서 오른발로 공을 살짝 건넜다. 공은 수비수 키를 넘었고 왼쪽 골지역으로 파고든 알레한드로 알론소가 가슴으로 한 번 진정시키고 나서 왼쪽 눈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세차게 흔들었다. 의도적인 어시스트가 아니었어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친금 같은 동점골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반면 김두현은 이날 포츠머스와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경기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고 끝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북한, 2연패 좌절 U-20 여자월드컵 축구

최홍만에 종합격투기 전향 권유

여자청소년축구 강호 북한이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했다.

지난 대회 챔피언 북한은 8일 오전(한국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무니시팔 데 라 플라타 경기장에서 열린 2008 FIFA U-20 여자월드컵 결승에서 미국에 1-2로 패했다.

전반 23분 시드니 리코스에게 선제 결승골을 내준 북한은 42분 알렉스 모건에게 추가골까지 얻어맞아 전반을 두 골 차로 끌려

간 채 마쳤다. 후반 들어 만회를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쉽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하던 북한은 추가 시간이 흘러가던 후반 47분 차후남이 한 골을 넣었다. 그러나 승패를 뒤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이로써 처음 출전한 2006년 러시아 대회에서 남북한을 통틀어 사상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북한의 2회 연속 대회 정상 도전은 아쉽게 좌절됐다. 앞서 열린 3·4위 결정전에서는 마리에 폴만이 헤트트릭을 기록한 독일이 프랑스를 5-3으로 꺾었다.

K-1 주최사 FEG 단체가 '테크노 폴리아웃' 최홍만에게 입식타격이 아닌 종합격투기(MMA)로 전향할 것을 권유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스포츠 일간 '닛칸스포츠'는 8일 인터넷판을 통해 다나카와 사다하루 FEG 대표가 최홍만이 그라운드 기술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로 전향할 것을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최홍만은 지난 6일 일본 요코하마아레나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레이 세포(37·뉴질랜드)와 리저브매치에서 느린 움직임에 더 정확한 펀치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16:40), <한국전력·현대캐피탈>(18:40·KBS N SPORTS) ▲08/09 프로농구 <LG·KTF>(18:50·SBS스포츠·XPORTS·MBC ESPN)

10일(수) ▲08/09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6차전 <첼시·CFR클루지>(04:30·MBC ESPN)

9일(화) ▲08/09 V리그 <현대건설·흥국생명>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Suppor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